

## 그냥저냥 삼시다

신영철

여보게 친구야  
오해 풀고 가자꾸나  
이제 우리  
그만둘 만큼 세월이 갔지 않는가  
지지고 볶고 따진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닌데

짧은 세월에 만난 인연  
좋아도 나빠도  
외로운 게 인생인데  
세상을 그만두는 날까지  
그냥저냥 삼시다

어디 그리  
세상이 내 맘대로  
살아지는 것도 아닌데

친구는 세상이다. 마음먹은 대로 살아지지 않는 세상살이다. 불편하고 고달픈 세상과 더 이상 맞서지 말고 갈등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나의 오해가 얽히고설키고 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건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고 볶고 따지고 싶지 않다.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기면 어떻게 지면 어떻게, 아무 것도 아닌데 고집을 피울 이유가 무언인가. 이겨본들 상처만 남아 아픈 것을 차라리 지고 말 것을 어찌 그리 힘들단 말인가.

어차피 외로운 인생 그냥저냥 살자고 한다. 특별한 일 없이 되는대로 살자고 타협을 짓고자한다. 상대와 지지 않고 서로 이기면 좋으려만 지기를 싫어하는 자존심 때문에 굴레 속에 빠져 사는 생태를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러나 내 맘대로 살아지지 않는 세상을 화자도 그 안에 일원으로 어찌지 못하고 아픔을 짊어지고 외롭게 살고 있다.(윤 제 철)

## 두타산을 오르다

김 현 만(시인)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오전 3시 40분 꼭 8개월만의 찾아온 두타산은 아직은 어둠속에 앉아 있다. 달빛에 그을린 새벽은 바람 속을 소리 죽여 걷는다. 산길을 구불구불 한참이나 올라서 도착한 입구 주차장에는 멀리 대구에서 올라온 동호인들과 전주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맞아 이곳 두타산을 찾았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이라 마주하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한참을 들여다 봐야한다. 차안에서 힘든 새우잠을 자고 고생들 하였지만 새벽이슬 맞고 먹는 라면은 꿀 맛 같다. 저번 두타산 산행 때는 겨울 초입이고 바람이 너무 강해서 함께 간사람 절반정도가 산행을 포기할 정도로 바람이 우리의 길을 막아섰다.

오늘은 바람도 자고 반달 비스무래한 달빛이 산행하기는 그만일 것 같다. 우리는 앞서가는 타 지역 산악인들이 오르는 등산로를 배제하고 작년 산행을 한 우리만의 등산로를 오르기로 했다. 선두에 한우리 회장님이 길을 안내하고 나는 중간을 택해서 이탈자가 없도록 유도 하면서 1시간 정도를 오르다보니 벌써 동이 트고 있었다.

미풍이 속삭이는 우리만의 산행은 어둠을 깨우며 가는 작은 숲속 등산로는 즐거움으로 가득 하다. 모두 가슴 가득 행복을 간직한 모습이 어둠속을 밝히는 미소로 언제고 추억 깊은 언저리에 둘만 하였다. 노송이 반갑다고 커다란 엉덩이를 맞대고 악수를 청한다. 붉은 적송들이 수 십 년은 아니면 백년도 넘어 나이를 먹음직한 의연한 자태로 우리를 반겨준다. 두어 번 숨이 턱까지 오르면서 힘이 들었지만 완만한 등산로는 지친 우리를 잘도 어르면서 길 앞으로 몰아갔다. 봉오리를 두어 번 넘어서니 멀리 두타산이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워지고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철쭉군락을 지나면서 솔향기가 코를 찌른다. 자연은 이렇듯 우리에게

게 소중한 벗으로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자연을 잇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 모를 일이다.

출발 2시간 30분만에 정상을 밟았다. 먼저 오신 분들과 반가운 재회를 하고 미리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아침을 다함께 먹었다. 간단한 술도 한잔씩 하고 정상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두타에 주변은 장관이었다. 멀리 청옥산 보이고 목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듽성듬성 초목지가 펼쳐져 유럽 어느 곳에 와 있는 느낌이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도 찍고 정담을 나누다가 하산 하였다.

두타산은 오를 때 보다 내려가는 동안 보는 즐거움이 더 좋다. 기암괴석 아름다운 폭포에 정신이 혼미하여 거북바위에 여장을 풀고 세상이야 어떠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고 별령 드러 누워서 신선이 그러한 것처럼 늘어지게 한숨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도 아직 후미가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은 여유를 부리다가 내려왔다.

무릉계곡 백옥 같은 물속에 지친 발을 담그고 있다 보면 세상 근심은 멀리 사라지고 청량함이 내 안으로 밀려든다. 곳곳의 하얀 모습으로 장대한 바위들이 군을 이루고 갖가지 숲 내음에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 언제고 이곳에 머물고 싶어진다.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불렀던 나의 18번 「백년의 약속」은 산 빛만큼이나 아름답게 가슴에 젖어 들었다.